

홀스타인 품평회를 통한 우리의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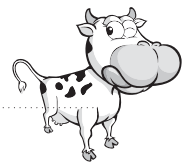
글 강석형과장
서울유유 낙농지원팀

1. 서론

우리나라의 젖소품평회는 한국종축개량협회가 1989년에 <고능력젖소평가·경매대회>의 명칭으로 46두가 참여하여 개최한 것이 처음이다. 이제는 크고 작은 규모의 홀스타인 쇼가 각각 특성에 맞는 다른 이름으로 연간 10여 개 정도로 개최될 정도로 규모와 내용 면에서 많은 발전을 이룩하였다. 그렇지만 낙농 선진국에 비하면 턱없이 적은 숫자일 뿐이다. 참고로 가까운 일본은 년간 약 200여 개의 크고 작은 품평회가 개최되고, 5년마다 개최되는 전일본 공진회가 있다.

2005년도 일본에서는 일본 품평회 역사상 의미 있는 사건이 있었다. 일본에서는 북해도가 일본 낙농을 이끌고 있는 상황이므로 북해도 품평회가 가장 수준이 높고 출품규모가 크기로 유명하다. 출품규모가 350여 두 전후로 봄에 개최되는 블랙 앤 화이트 쇼(5월)와 가을에 개최되는 북해도 내쇼날 쇼(9월)가 바로 그 품평회이다. 또 2005년에는 5년마다 개최되는 전일본 공진회(2005년, 토치기현)까지 3개의 큰 대회가 개최되었다. 이 3개 대회에서 한 개체가 모두 그랜드 챔피언을 차지하였다. 한 대회에서도 차지하기 힘든 그랜드 챔피언을 3개 대회 연속으로 그랜드 챔피언을 차지한 것이다. 목장은 북해도에 니와시에 있는 후쿠야 목장(후쿠야 히데토시)이다. 이 개체의 가치 또한 2억 이상을 상회한다고 한다. 부러움이 아닐 수 없다.

우리에게는 비록 짧은 품평회 역사이지만, 품평회를 통한 개량과 그 개량도를 확인하고, 다시 개량방향을 설정하는 노력에 경주할 때 낙농 선진국과 같은 우수한 개체가 탄생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2005년 선형심사에서 90점



〈 표 1 〉 서울우유 홀스타인 경진대회가 개량에 미치는 정도 설문 결과

젖소 개량에 기여도(%)	없음	약간	어느 정도	많음
	0	3.5	24.6	71.9

(제 5회 서울우유 홀스타인 경진대회 설문조사 결과)

의 엑셀런트급 개체가 탄생하여 앞으로의 선형 심사 결과가 주목된다. 이러한 우수한 개체가 품평회에 참가하여 타인에게 개량과 참여의욕을 높일 수 있기를 희망한다.

표 1의 농가 설문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품평회가 젖소개량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72%).

홀스타인 품평회를 통한 젖소개량을 위한 우리의 노력이 동시에 이루어질 때 우리나라의 젖소개량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이 지면을 통하여 품평회를 통한 젖소개량을 이룩하기 위하여 우리가 노력해야 할 길이 무엇인지 정리해 보고자 한다.

2. 본론

가. 품평회의 의의

품평회는 아름다운 젖소를 뽑는 미인대회라고 생각할 수 있다. 미인대회 역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최고 미인을 선발하여 다양한 홍보대사의 역할을 수행한다. 젖소 품평회도 아름다운 젖소를 뽑는 대회인 것이다. 체형형질과 생산형질과의 관련성이 높으므로 체형이 우수한 젖소를 보유한다는 것은 생산성을 향상시

키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우리 목장의 소를 타인과 비교해 볼 수 있는 최대의 젖소 개량 축제이다. 다른 출품우와 비교하면서 정보를 교환하고 개량방향을 도출해 내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나. 앞으로의 과제

① 홀스타인 품평회 규모의 확대

현재 우리나라는 10여 개 정도의 지역 품평회가 개최된다. 규모로 볼 때 전국 규모인 한국종축개량협회의 한국홀스타인품평회와 서울우유검정농가를 중심으로 한 서울우유 홀스타인 경진대회가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고, 출품규모도 200여 두에 이른다. 지역 품평회는 지역 특성에 맞게 조금씩 다르지만 30 ~ 70두 정도의 중·소규모로 개최되고 있고 확대되는 추이를 보이고 있으나, 수준이나 규모는 선진국에 비하여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낙농 선진국의 지역 품평회는 큰 대회의 참가 자격을 가름하는 예선전 기준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으며 서로 부담을 느끼지 않으면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우리나라도 대회의 규모와 성격에 따라 낙농가의 자발적인 참여로 개최되는 품평회가 확

〈 표 2 〉 주요 국가의 품평회 일정(2006년)

기 간	명 칭	규 모	나 라
1월 15 ~ 20(6일)	호주 내쇼날 쇼	400 여두 출품	호 주
2월 9 ~ 12(4일)	유럽 오픈 홀스타인 쇼	250 여두 출품	이탈리아
5월 27 ~ 28(2일)	2006 북해도 블랙 앤 화이트 쇼	300 여두 출품	일 본
5월 31 ~ 6월 1일(2일)	유러피언 챔피언 쇼	200 여두 출품	독 일
7월 중순(2일)	네덜란드 홀스타인 쇼	300 여두 출품	네덜란드
9월 22 ~ 24(3일)	2006 북해도 홀스타인 내쇼날 쇼	400 여두 출품	일 본
10월 초(6일)	월드 데어리 엑스포	400 여두 출품	미 국
11월 초(10일)	로얄 어그리컬처 윈터 페어	400 여두 출품	캐나다

(나라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대될 필요가 있다. 품평회의 참가는 젖소개량을 통한 정보교환과 생산성 향상의 한 방향이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젖소 개량을 높은 수준으로 조기에 이룩하기 위해서는 규모의 확대와 함께 정부 차원에서의 품평회 개최 지원도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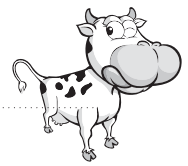
표 2는 세계 주요 국가의 품평회를 정리한 것이다. 사정에 따라 변경이 있을 수 있으나 나라별로 2일에서 길게는 10일까지의 기간 동안 개최된다. 품평회 확대를 위한 낙농 선진국의 품평회 참관은 기회와 여건이 된다면 그 나라의 특징에 맞는 품평회를 참관하는 것이 우리나라 품평회 확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②심사원 양성

앞으로 품평회 개최가 증가하게 되면 당연히 심사원도 많이 필요하게 된다. 일본의 경우 낙농가나 관련 기관의 실력가들 중에서 교육과 검

증을 거쳐 심사원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심사원을 인정심사원이라고 부르며 중소규모의 품평회에서 심사를 담당하고 있다. 서울우유홀스타인 경진대회 심사를 담당했던 3인의 일본인 중에서 2회 대회 때 심사를 담당했던 아사노씨가 바로 인정심사원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앞으로 증가될 품평회 확대에 따른 심사원의 체계적인 육성과 관리 평가 등의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많은 심사원의 확보는 품평회 심사를 통한 젖소 개량을 촉진하는 기회도 되지만, 심사원 간의 선의의 경쟁을 통한 자기계발은 젖소개량의 수준을 높일 수 있기에 충분하다. 물론 다른 나라의 모습을 그대로 답습할 수도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는 한국형 심사원 양성제도를 통하여 유능한 심사원이 많이 양성되길 기대한다.



〈그림 1〉 일본 북해도 홀스타인 농협에서 개최하는 심사원 양성과정

③품평회 출품준비의 철저

품평회 평가는 체형이 우수한 개체가 얼마나 많이 출품 되었는가로 평가할 수 있다. 그렇지만 대회의 심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소의 체형 뿐만은 아니다. 출품자의 자세와 태도, 털 깎이 및 목욕 상태, 순치상태 등도 적지 않게 영향을 미친다. 선진국의 품평회와 비교하여 가장 크게 비교되는 부분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품평회를 보면 가장 미숙한 부분이 출품준비과정이라고 생각된다. 대회에서 날뛰는 출품우가 있거나 매너가 불량하거나 인도지식이 없는 인도가 아직도 많이 눈에 띈다. 관람객에게도

좋지 않은 인상을 주는 것은 당연하고 심사원으로부터도 순위경쟁에서 뒤로 밀릴 수 있게 된다. 좋은 소를 출품하고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게 된다.

물론 앞으로 품평회가 지속적으로 개최되면서 많은 부분이 해결되리라 생각되지만, 털깎는 순서와 방법, 목욕순서, 목욕 시기 및 방법, 소를 훈련시키는 시기와 방법, 심사장에서 소를 인도할 때 방법과 주의사항 및 정확한 인도자의 자세, 심사원 응대방법 등 출품자가 간과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심사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인식하고 출품준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또한 길들이기가 부족한 출품우가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출품준비와 심사원 응대에 대한 방법과 요령의 숙지는 교육이나 안내책자 등을 활용하여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표 3은 출품 시 가장 크게 느끼는 부담과 준비 시 어려운 점에 대한 설문 결과이다. 출품농가 중 66%가 출품 준비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으며, 반 이상의 출품자가 길들이기에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출품준비 시 가장 어려운 점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

구 분	항 목 (%)			
	출품시 가장 큰 부담	이동	입상탈락	출품준비
32.8		0	65.5	1.7
출품준비시 가장 어려운 점	출품우 선정	길들이기	목욕	털깎기
	26.8	57.1	3.6	12.5

(5회 서울우유 홀스타인 경진대회 설문조사 결과)



〈그림 2〉 길들이기 및 보행 훈련시키기



〈그림 4〉 심사원을 응시하며 소를 리드하는 모습



〈그림 3〉 완벽한 털깎기 모습

④선형심사의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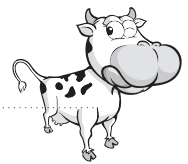
우리나라도 2005년은 90점 이상의 엑셀런트 급 소가 탄생하였던 의미있는 해가 되었다. 선형심사는 젖소의 기능적 체형의 장단점을 파악하는 기본이 되는 작업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15개 형질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있다. 표 4의 서울우유 농가의 선형심사 참여현황을 살펴보면 매년 10,000두 이상의 두수가 심사에 참여하고 있지만, 검정우(59,500두)의 23%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23%의 심사두수로 서울우유 심사성적을 대표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 심사 참여 두수의 부족은 정확한 우군의 체형을 평가하는데 부정확한 결과를 만들 수 있다.

개체별로도 정확한 체형의 분석은 종모우 선정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과정으로 이어지게 된다. 기능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종모우의 선정은 개량에 있어 매우 중요한 작업인 것이다. 이러한 작업이 반복되면 체형이 훌륭한 개체를 만들 수 있고, 품평회에서도

〈 표 4 〉 최근 6년간 서울우유 농가 선형심사 현황

구 분	2005년	2004년	2003년	2002년	2001년	2000년	평균
심사두수(두)	14,005	14,098	16,672	8,188	8,733	12,130	12,304
목 장 수(호)	719	871	857	433	566	628	679
최 중 점 수	75.0	74.3	74.0	74.3	74.3	73.9	74.3



〈 표 5 〉 주요 품평회 입상우의 선형심사 현황

입상경력		산차	일반외모	유용특질	체적	지제	비유기관	최종점수 (2005년)
대회명	입상명							
2005 서울우유	5부 최우수	1	G	F	G	F	G	72
	6부 최우수	1	+	+	G	G	+	79
	6부 우수	1	+	+	G	+	+	80
	6부 우수	1	+	G	+	+	G	79
	7부 우수	1	G	+	G	+	V	83
	7부 우수	1	+	+	G	+	+	81
	8부 최우수	1	+	+	+	G	+	81
	준그랜드	2	+	+	+	+	+	81
	그랜드	3	E	V	+	V	+	86
	10부 우수	2	V	+	+	+	+	86
	10부 우수	3	+	V	+	+	+	82
	11부 우수	4	+	+	V	G	+	82
	11부 우수	4	V	+	V	+	+	84
2005 종개협	인터미디어트	1	+	+	+	+	+	83
	9부 우수	2	V	V	+	+	V	84
	준그랜드	2	+	+	+	+	+	82
2004 종개협	4부 우수	1	+	+	G	+	G	79
	6부 우수	1	G	+	F	P	G	74
	6부 우수	1	G	+	G	+	+	81
	그랜드	3	E	V	V	+	E	90
	9부 우수	3	+	V	G	+	V	83
2003 서울우유	1부 우수	1	G	+	G	G	+	79
	2부 우수	1	+	+	+	+	+	83
	2부 우수	2	G	V	G	G	F	76
	3부 우수	1	+	+	+	+	+	83
	4부 최우수	1	+	+	V	+	F	76
	7부 우수	3	+	V	+	+	+	82
	7부 우수	3	+	V	G	+	V	83
	10부 최우수	3	G	+	+	+	+	79
평균								81.1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지속적인 심사의 확대와 개량으로 액셀런트급 소가 많이 탄생하기를 기대해 본다.

표 5는 서울우유 농가의 입상우들에 대한 2005년도 선형심사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평균 81.1을 기록하고 있지만, 심사점수가 높다고 하여 반드시 입상하는 것은 아니다. 출품 준비 과정과 품평회 심사장에서의 모습과 인도자의 자세도 중요하다.

⑤혈통관리의 철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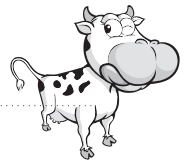
선진 낙농국의 품평회를 보면 출품우 전두수가 부모의 혈통을 확인할 수 있는 개체만 출품하고 있는 상태이다. 혈통의 확립은 젖소 개량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으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한국홀스타인품평회는 이미 혈통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있지만, 2005년

제 5회 서울우유 홀스타인 경진대회(2005년)에서는 과거보다 많이 감소하였지만 여전히 기초등록우의 출품과 입상이 있었다. 대회의 수준과 가치를 떨어뜨리는 모습임에 틀림없다. 앞으로는 혈통이 확인된 개체로 혈통 기준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품평회에 출품하기 위하여 등록을 하는 것은 아니다. 혈통은 정액의 선정에도 매우 중요한 요소일 뿐 아니라 개체의 유전능력 평가 시에도 필요한 것이다. 혈통이 없는 기록은 유전능력 평가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임에 틀림없고 나아가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표 6은 서울우유 홀스타인 경진대회 출품우 등록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경산우 출품우 중 12.2%, 입상우 중 6.1%가 미등록우이다. 앞으

〈 표 6 〉 제 5회 서울우유 홀스타인 경진대회 출품우 등록현황

구 분		출 품 우		입 상 우		비 고
구분	부 별	기 초	본 이 상	기 초	본 이 상	
미경산	1부~5부	-	97	-	15	본 등록 이상
	계	-	97	-	15	
경산	6부	3(33.3%)	6	0	3	
	7부	6(33.3%)	12	0	3	
	8부	4(33.3%)	8	1	2	
	9부	3(15.0%)	17	0	3	
	10부	2(12.5%)	14	1	2	
	11부	5(29.4%)	12	0	3	
	계	23(25.0%)	69	2(10.6%)	16	
전 체 합 계		23(12.2%)	161	2(6.1%)	31	



로는 혈통 등록 기준의 강화를 통하여 품평회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일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혈통의 수준을 높이려면 농가 스스로가 조기에 등록에 참여하여 개체가 성장함에 따라 혈통이 사라지는 것을 막는 것도 혈통 유지의 한 방법일 것이다.

⑥입상우에 대한 예후

품평회에서 입상한 개체는 많은 부상과 상품을 수여하게 된다. 일부 유관업체의 홍보용 사진에 오르며 홍보대사의 역할을 하게 된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낙농 선진국은 품평회에서 입상한 개체는 특별한 대접을 받는다. 입상 개체의 가격이 오르는 것은 당연하고 수정란 이식 등을 통하여 능력과 혈통의 보급에 투자한다.

미국에서는 챔피언에 입상한 소는 이미 그 입상우의 딸소까지 경매단계에서 판매가 되고 있고, 2005년 그랜드 챔피언을 휩쓴 '스카이치 프 서니-ET'도 2억 이상의 가치가 부여된다.

아직 이러한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도 입상우에 대한 예후가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⑦실내대회장 확보

얼마 전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기쁨과 희망을 안겨준 WBC야구 대회가 있었음을 기억할 것이다. 4강이라는 신화적인 성적을 거두었지만,

TV를 통해 소개되는 실내에서 멋진 조명과 아름다운 조경으로 야구 경기를 펼치는 다른 나라의 야구수준 보도를 접할 때 무척이나 부러웠다. 날씨에 관계없이 선수들의 자기 기량을 뽐낼 수 있음은 정말 큰 매력임에 틀림없었다.

아마도 다른 나라의 품평회를 본 경험이 있다면 실내 품평회장에서 멋진 대회가 진행되는 모습을 쉽게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 필자는 지난해 제 5회 서울우유 홀스타인 경진대회 개최를 진행하면서 실내 대회장의 필요성을 절감했다고 할 수 있다. 아마도 제 5회 서울우유 홀스타인 경진대회에 참가하신 관람객 대부분 같은 생각을 하셨으리라... 많은 다양한 부대행사를 준비했지만 비로 인하여 예정대로 진행하지 못한 점도 아쉬웠다. 경진대회의 핵심인 대회 심사의 중단과 비를 피하느라 심사장 및 대회장이 모두 엉망이 되어 많은 변화가 생겼다. 톱밥의 유실로 심사장 모습이 제대로 유지되지 못하였고, 우비를 입고 심사하는 광경이 있었으며, 관람객들이 비가림 시설이 있는 장소로 집중되는 모습과 조기 귀가 등이 보였으며, 모든 사람들이 우산과 우비를 확보하느라 분주한 모습으로 인하여 대회에 집중할 수가 없어, 계획했던 대로 진행이 어려웠다. 다행스럽게도 빗줄기가 약해지면서 예정된 심사는 진행할 수 있었지만, 이미 분위기는 처음처럼 만들 수 없었다.

실내 대회장이었다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표 7〉 우선 준비해야 할 사항에 대한 설문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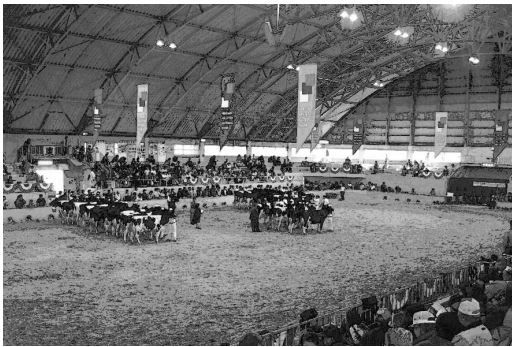
우선 준비사항	실내품평회장(%)	선진대회 시찰(%)	체형개량(%)	타 기관과 협조(%)
		58.2	16.4	23.6

(제 5회 서울우유 홀스타인 경진대회 설문조사 결과)

있었던 아쉬웠던 순간이었다. 우리나라도 실내 대회장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실내 대회장 건설에 많은 진전이 있다는 이야기도 있다고 들었다. 참으로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고, 수준 높은 품평회 개최를 통한 젖소개량과 소득 향상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실내 품평회장이 하루라도 빨리 건설되기를 기대해 본다.

표 7은 앞으로 우선적으로 수반되어야 할 내용에 대한 설문 결과이다. 출품자의 58%가 실내 품평회장의 필요성을 우선 준비사항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림 5〉 일본의 북해도 내쇼날 쇼의 실내대회 장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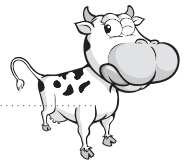
〈그림 6〉 미국 월드 데어리 엑스포의 실내대회 장면

⑧ 사진촬영 기술 습득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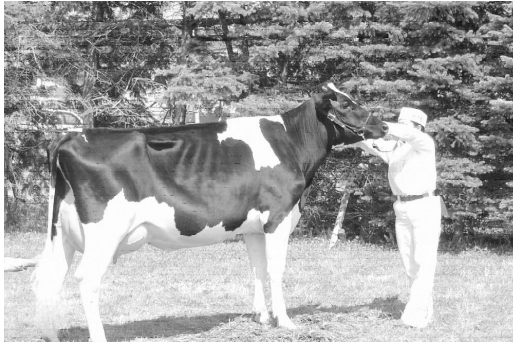
매년 품평회를 개최하지만 품평회장에 있지 않은 타인들은 방송보도, 개최결과 요약, 인터넷 등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접할 수 밖에 없다. 이럴 경우 대부분은 사진을 통하여 대회를 확인하고 평가할 것이다. 결국 몇 장의 사진이 품평회 전체를 평가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사진이 얼마나 보기 좋게 잘 촬영되었는가로 품평회 수준을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입상우를 촬영하는 방법에 따라 소가 좋게 보이기도 하고 그렇지 않게 보이기도 한다. 2005년도 한국홀스타인품평회에서도 사진촬영장을 독립된 공간에서 실시하였지만, 매우 힘들게 촬영하는 광경을 목격하였다. 일본의 품평회 사진 전문가인 오가와씨가 촬영을 맡았지만, 매우 힘들어하고 어렵게 사진을 촬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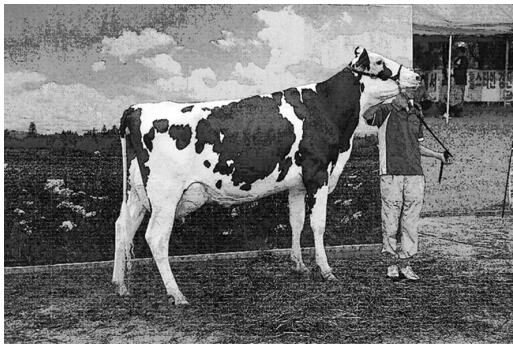
우선 입상우가 순치가 되어있지 않은 것도



문제였지만, 인도자와 촬영보조자의 촬영에 대한 기술 습득이 다소 미흡해 보였다. 더욱이 사진 촬영장에는 많은 관람객과 기념 촬영자들로



<그림 7> 올바른 사진촬영 자세



<그림 8> 잘못된 사진 촬영 자세



<그림 9> 별도의 장소에 한적하게 꾸며진 사진촬영장

붐비고 있어 입상우를 사진 촬영에 집중시키기는 더욱 어려웠다. 다른 나라의 경우 사진 촬영장은 별도의 한적한 곳에 관람객 출입을 통제하고 실시한다. 아직 시설이나 환경이 되어있지 않은 우리로서는 어쩔 수 없다고 할 수 있지만, 사진 한장이 주는 가치를 생각해 볼 때 소를 중심으로 환경을 고려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관람객의 출입을 통제하고, 촬영에 방해가 되는 요소는 최대한 제거해야 할 것이다. 더욱이 촬영자, 인도자, 촬영보조자 등의 사진 촬영에 대한 지식을 숙지해야 하며 소에게 집중할 수 있는 도구를 적절히 이용하는 방법 등도 숙지해야 할 것이다.

⑨ 낙농 홍보와 연계

품평회를 통한 젖소 개량이라는 목적도 있지만, 소비자에게 우유 및 유제품을 홍보하고 친숙한 낙농의 이미지를 제고시켜 소비자로 하여금 낙농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도록 하여



<그림 10> 지역 및 소비홍보와 연계된 전일본공진회부스

우유 소비확대를 통한 안정적인 낙농 소비저변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출산율 저하와 음료 및 대체 음료수와의 치열한 경쟁으로 소비시장의 축소로 인한 낙농 소비 기반의 위축은 낙농가 뿐 만 아니라 관련 종사자 모두의 위협일 수 있으므로 품평회를 통한 소비자의 참여를 높이고, 체험실습 및 응용 체험 등을 통한 소비 홍보의 모습은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절대절명의 과제이다.

일본의 전일본 공진회(5년 마다 개최)는 현 단위로 개최하는 대단위 낙농 축제로 참가인원만으로도 600,000명이 넘는 대규모 축제이다.

3. 결론

품평회는 소를 출품하여 입상하는 것만이 결코 아니고 젖소 개량을 위한 필수 과정임을 명심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엑셀런트급소가 탄생하였지만 아직은 매우 미비한 수준이다.

여러 설문과 자료를 통하여 품평회가 개량에 미치는 영향과 효과는 크게 나타나고 있듯이 우리가 해야 할 일들도 많이 산재해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것 중에서 첫째는 품평회 개최 확대를 통한 저변 확대, 등록과 철저한 심사를 통한 개체 파악, 품평회 개최 의의에 맞는 출품준비와 쇼장에서 매너 향상, 사진 촬영 기술의 향상 등을 기본으로 우리나라 품평회 수준을 높이는 것이다.

두번째는 실내 품평회장의 건설로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 품평회 개최, 세번째는 소비자에게 낙농을 홍보 할 수 있는 기회로의 이용 등을 들 수 있겠다.

물론 쉽지 않은 일이라 생각하지만, 낙농 선진국으로 가는 길목에서 반드시 우리가 극복해야 할 일들이라고 생각한다. 비단 필자 뿐 만 아니라 젖소 개량에 관심이 있고 품평회를 사랑하는 모든 분들의 힘찬 노력을 기대해 본다.

